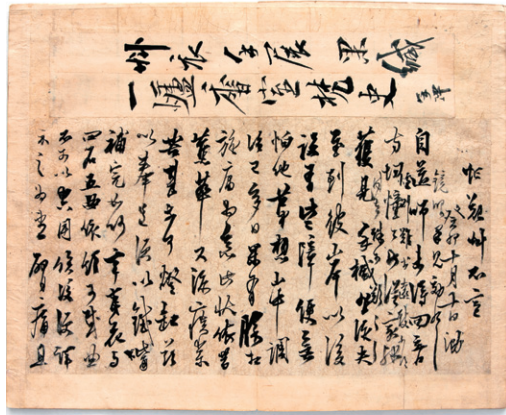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편지 받고난 후 피안에 이른다 상쾌”

제주에서 말을 타다 엉덩이에 큰 상처를 입었던 초의는 완쾌되지 않은 채 대흥사로 돌아갔다. <완당전집> <여초의> 19신에도 소개된 이 편지는 <벽해타운첩>이 발굴된 후, 1843년 10월 10일에 쓴 편지임이 밝혀진 셈이다.

따라서 초의가 제주도를 출발, 대흥사로 돌아온 시점은 이 해 늦가을로 추정된다. 특히 추사는 성치않은 몸으로 돌아간 초의의 소식을 애타에게 기다렸는데, 이 편지에는 그의 애뜻한 마음이 행간에 오롯이 배어났다. <벽해타운첩>에 실린 이 편지는 다음과 같다.



초의의 안부를 애타에게 기다린 것을 알 수 있는 <벽해타운첩>의 편지.

소식 몰라 안절부절...애뜻함 행간에 질그릇 등항·안경 초의에게 선물

即從家隸 獲得見手械 非徒?慰到彼岸 以後 設有 些障 便無?他 第想山中調治已多日 果有勝相 旋庸 爲念 此狀依昔蕉萃 又添疾?苦甚 奈何 燈缸茲以奉 送便 以鐵嘴補完如何 辛夷花與四石五曲 依領可 感 曲可不以空用 俟後便詳示之爲望 臂痛且忙艱 草 不宣 癸卯 十月十日 勸 鏡眼果見效耳 爐則難於遠致 不得付去 殊可歎 可歎耳

분명 초의는 1843년 여름까지도 제주도에 머물렀다. 따라서 이 편지가 1843년 10월 10일에 쓴 것임으로 그가 제주를 떠난 것은 이 해 늦가을이라 추정된다.

특히 추사는 제주도를 떠난 후, 소식이 두절되었던 초의의 안부를 애타에게 기다린다. 집안의 하인을 통해 초의의 편지를 받은 후에야 ‘피안에 이른 것 같이’ 상쾌하고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하니 그의 걱정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드러낸다. 실제 제주도에서 입은 초의의 부상은 후일 경향의 지인들 사이에서 ‘초의가 말을 타다가 팔이 부러졌다거나 다리를 다쳤다’고 와전되기도 하였다.

풍문이란 이렇게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확대되는 속성을 지닌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풍문의 폐단을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여도 내가 살피고,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여도 내가 살피야 한다’고 경계한 것이리라.

한편 추사는 제주에서 초의에게 등항을 선물한 이외에도 안경을 선물했음이 처음으로 밝혀진 셈이다. 추사가 선물한 안경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인지 아니면 경주 남석으로 만든 안경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시 귀품이었을 안경을 선물한 것은 추사와 초의의 관계를 극명히 드러내는 일이라 하겠다.

안경의 역사를 대략 살펴보니 17세기 경주 남석을 가공해 만든 수정 안경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순조 연간에 안경이 유행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1590년 통신부사로 일본을 다녀온 문신 김성일의 안경이 전해진다. 따라서 초의는 추사를 통해 신문물을 접했음이 더욱 분명해진 것이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불법은 고통의 바다서 만난 의지처이자 ‘섬’ (燈)

전재성 박사 (빠알리성전협회 회장)

유신독재에 항거해 민중불교를 외쳤던 청년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고 1982년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던 유학생활은 막막하기만 했고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길을 걷다가 호숫가에서 당근을 꺾어먹고 있는 남루한 처림의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된다. 청년은 자신도 모르게 그 남자 옆에 앉게 된다. 그리고 남자는 그런 청년에게 자신이 먹고 있던 썩은 당근을 건네준다. 그때 청년은 남자의 얼굴을 또렷히 보게 된다. 거기엔 절로만 알았던 남자의 얼굴은 너무나 맑고 눈빛은 빛났다. 그는 집 돈 여자가 없이 부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고 있는 불교도였다. 청년은 그를 거지성자라 명명했고 이후 그와 함께 7년을 보내며 초기경전 니까야를 알게 되었고 청년의 삶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됐다.

“니까야는 부처님의 실제 행보를 기록한 경전이죠. 불교도인 페터노이아르를 통해 니까야를 알게 됐어요. 거지성자 페터는 이런 부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고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울컥 눈물이 나오. 그분을 통해 저는 부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빠알리성전협회 회장 전재성 박사(60)는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거지성자 페터노이아르와의 만남 그리고 니까야와의 인연을 이렇게 회고했다. 4월 16일 오전 흥제동에 위치한 전재성 박사의 연구실을 찾았다. 최근 그는 <화엄경>의 핵심사상이 담긴 산스크리트어 <심지경>을 번역해 세상에 내놓았다. <17편 박스기사 참조> 그리고 지금까지 <쌍웃따니까야> <맛지마니까야> <앙가따라니까야> <디가니까야> 등을 번역하며 우리나라에 초기불교를 알리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다. 경전을 번역하는 동안만은 번뇌가 사라진다고 말하는 전재성 박사. 그래서 그에게 있어 경전 번역은 하나의 명상이요 또다른 수행의 방편인듯 보였다.

전 박사는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출생했다. 부산 난민촌에서 자란 그는 4세 때 끓는 물에 화상을 입었고 육체의 상처는 그대로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 너무나 빨리 인생의 고통을 빨리 알아버린 소년 전재성은 불교에 의지하게 된다. 그렇게 중학교 시절에는 불교교리와 명상을 배우는 불교모임에 나가 종교와 철학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키에르케고르, 하이데거, 사르트르, 메를로 폰티 등 실존철학과 서양 철학 등에 심취해 많은 책을 읽었다. 또한 붓다의 가르침 중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기록으로 받아들여지는 월풀라 라훌라의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기도 했다.

이런 그가 서울대 농대에 입학한 이유는 농촌에 가서 한가롭게 살고 싶어서라고 한다. 하지만 유신독재라는 서늘퍼런 역사의 한가운데서 대학시절을 보내야 했던 그는 한가롭기는커녕 시대의 운명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힘겨운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된다. 대학에 입학한 전 박사는 서울대 농대 최초로 불교학생회를 조직했고 전국대학불교연합회(대불련)과도 인연을 맺어 대불련의 총무부장을 맡게 된다. 이렇게 불교모임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서 시국을 토론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유신독재에 항거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동참하게 된다.

“당시 만해사상을 주요 이념으로 삼았던 대불련은 나라의 위기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민중과 함께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죠. 이후 대불련 활동을 하게 되면서 총무부장에 이어 회장직을 맡기도 했는데 이때 ‘민중불교회’를 조직해 시국을 토론했어요. 야학 선생도 했어요. 학생들에게 불교를 설명하려고 하니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쉬운 말로 경전을 가르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아마 이런 생각이 나중에 니까야를 번역하게 되는 씨앗이 되지 않았을까 해요”

이렇게 민주화운동 집회에 자주 참가하게 되면서 그는 요주의 인물(?)로 몰리게 되고 1974년 서대문형무소에서 3개월간 수감된다. “당시 이런 집회에 참여

한 것은 시대적 분위기가 맞고 제 위치가 저를 그곳에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이유도 있었죠. 하지만 3개월의 수감생활을 하고 나서는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였는가를 절감하게 됐고 사회문제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중불교운동론이라는 글을 쓰게 됐죠”

하지만 불교계 어디서도 그의 글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서야 소설가 황석영 씨의 도움을 얻어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발행하는 <대화>지에 ‘민중불교론’이 실리게 된다. 잡지는 나온지 1주일만에 폐간됐지만 이런 이유로 세상이 떠들썩해졌고 전 박사의 ‘민중불교론’은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된다. 불교계의 반응 역시 컸다. 유신독재 항거하는 운동에 불교인들이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전 박사는 <씨알의 소리> <뿌리깊은 나무> 등 진보 잡지에 글을 기고하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내면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당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온통 저를 지배했어요. 사회도 고립됐고 나도 고립됐다는 생각뿐이었죠. 시위만 하면 요주의 인물로 분류돼 사전구금을 당해야 했고 지방인 폐결핵으로 고통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취직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하천을 내려다보고 있

대학시절 유신독재에 항거하며

<민중불교론> 집필로 세간의 주목

이후 구금·폐결핵 등으로 고난 겪어

독일에서 거지성자 페터노이아르 만나

초기경전 니까야로 삶의 전환점 맞아

1인 작업으로 꾸준히 번역·출판 매진

는데 나도 세상도 사라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일정 명상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됐습니다.”


이즘을 전 박사는 요가나단의 <오트바이오그래피>라는 책을 읽고 인도철학의 신비주의에 빠졌고 동국대 대학원에 진학해 인도철학을 공부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당시 여지친구의 도움을 받아 서양철학과 힌두교 등을 공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독일의 쾰른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된다. 하지만 그곳에서 거지성자 페터노이아르를 만나 독일에서 번역된 초기경전 니까야를 알게 되면서 그의 운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나무 밑에서 잠자고 탁발하며 사는 그의 삶은 저한테 무척 큰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의 손에 이끌려 도서관을 따라갔더니 독일에는 이미 니까야가 다 번역이 되어 있었다고요. 무척이나 경이로웠죠. 저는 당시 페터와 함께 자주 산책을 했는데 그는 중요한 구절을 한 획도 안 그리고 암송을 해주었어요. 그의 니까야 암송을 들을 때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황홀함에 빠졌어요. 책에서 본 부처님 삶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의 삶이 고스란히 전달되어 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의 삶을 본받고 싶었고 또 부처님의 삶을 어떻게든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니까야 번역을 시작하게 됐죠”


89년도에 한국에 들어와 한 스님의 후원을 받아 번역을 시작했지만 여의치가 않았고 후원은 중단됐다. 이렇게 니까야 번역서 출간이 어렵게 되자 그는 한 대학에 교수직을 맡게 되면서 니까야 경전 출판은 미루



1987년 독일 본대학 기숙사 회관에서 올린 결혼식에서 거지성자 페터노이아르가 주례를 섰다.



WORLD BUDDHISM LEADER



나라와 종단 어느 승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는 분을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중정들이 역시 그 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500인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高僧 및 元老 선정(宗師, 大宗師 급만 동참 가능)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법하께서도 법왕청 및 승왕청에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시시오
한국 및 세계 고승 500인 한분 한분의 공적과 활동 내역을 기록한
고승 인명사전을 발간하여 지구촌 곳곳에 배포하여 간직하게 할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 입니다.

세계 법왕청을 설립하고 법왕 및 승왕을 추대하고자 하는 불교사에 개인의 명예와 독선조차 하심으로 자신을 내려 놓으시고 헌신적 희생정신으로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십시오. 법왕청 설립에 헌신하신 업적이 불교사의 한 페이지에 큰스님의 이름이 장식되었으면 합니다.

世界法王 & 僧王 推戴委員會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 시작했습니다
世界佛教高僧團人名辭典
세계 불교를 움직이는 인물 1인 A4용지 1장 분량 소개
세계 고승단 인명 사전 편찬 진행중입니다.
법하께서도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계불교 고승 및 원로 500인. 법왕청 및 승왕청 내각 580인
자랑스런 불교계 고승단 큰스님 총 1080인
추진위원으로 활동하심을 모든 스님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불교사의 영광이요 불교계에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개별통지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한국불교 범종단 총연합 협의회 회 장
미얀마 연방정부 한국주재 미얀마 명예대사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鐸 - 慧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전재성 박사는 ... 1953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인도철학과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독일 본 대학의 박사과정에서 인도학, 티베트학을 연구했다. 독일 본대학과 쾰른대의 동아시아 박물관 강사, 동국대 강사, 중앙승가대 교수, 충남대 강사 등을 역임했다. 불교 초기경전인 <쌍옷따니까야> <맛따니까야> <양국따라니까야> <디가니까야> 등을 번역했으며 빼알리성전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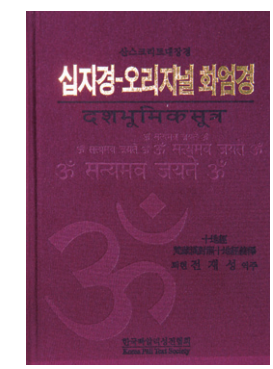
진다. 이후 IMF 사태가 닳고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면서 그 역시 교수직을 잃게 되었고 다시 번역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후원은 받기 어려웠다. 이후 지인과 도법 스님 등의 도움을 얻어 1999년에 간신히 <쌍옷따니까야>를 발간하게 된다. 그때부터 전 박사는 판매된 책의 인세로 매년 2-3권의 니까야를 번역, 대중들에게 초기경전을 알려오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빼알리성전협회가 발간하는 이 책들은 전 박사 혼자서 번역 교정 출판을 담당하며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을 두고 작업을 한 적도 있지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제 혼자 하는 만큼 효율적이지 못했어요. 그렇게 작업을 하면 1년에 300페이지 정도밖에 번역이 안돼요. 저 혼자서 작업을 하면 1년에 900페이지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쇄비 정도만 총담을 해 제 혼자서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을 택하다 보니 실수가 생긴 경우도 있었죠. <수다니파타>를 출간할 당시 교정이 다 된 줄 알고 원고를 넘겨 2000부를 인쇄했는데 교정이 덜 된 원고를 넘겼더라고요. 전량 회수해 폐기처분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죠" 광부가 석탄을 캐는 것보다 힘든 작업이 경전 번역 작업이라고 말하는 전재성 박사. 하지만 그가 이렇게 경전을 번역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섬의 존재에 큰 위안과 위로를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통 불법을

등불에 비유하는데 원뜻은 섬이예요. 섬은 좌초될 위험이 있을 때 정박해 쉬어갈 수 있는 곳이지요. 결국 파도를 만나면 쉬어갈 수 있는 의지처를 제공해주는 곳이 바로 이 법의 섬이죠. 저는 니까야 경전을 통해서 대중들이 쉬어갈 수 있는 섬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는 아직까지도 도전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다. 지금까지 혼자서 작업한 결과물인 <티베트어 한글사전> <빼알리어 사전>의 개정판 출간, <자타카>의 정확한 번역은 물론 불교기초학을 새롭게 정립해 보고 싶기도 하다. 또 제자 양성 역시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예전에 제자를 키우기도 했어요. 그 친구가 스리랑카까지 가서 공부를 했지만 결국은 일할 곳이 없더라고요. 좀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제자 양성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출간한 책들을 놓아둘 창고 없이 고전을 먼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돌보고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평생을 외길을 걸으며 부처님 말씀을 번역해온 전재성 박사. 그 시간 동안 젊은 시절에 고민하고 번뇌했던 고통의 바다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질문에 그는 그때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여전히 또다른 고통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에게 불법이라는 섬이 있기에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대중들에게 그 섬을 안내하기 위해 오늘도 니까야 번역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학계, 이중번역 오류 바로 잡아야”

전재성 박사, <심지경> 최근 번역 출간 초기불교 연구 권위자인 한국빼알리성전협회장 전재성 박사가 <화엄경>의 핵심사상이 담긴 산스크리트어 <심지경>을 번역했다. 전재성 박사는 4월 15일 번역서 <심지경-오리지널 화엄경>을 펴낸 기자회견에서 “기존 한역 경전에 기반한 이중번역으로 각종 번역상의 오류와 잘못된 단어 사용이 비일비재해 산스크리트 경전, 티베트 경전, 한문경전을 함께 비교해 화엄경 한글 번역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지경>은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모든 사상이 종합되어 있는 불교경전으로 화엄경의 핵심사상이 담겨 있다. 전 박사는 “이런 중요성으로 인해 1928년 용성 스님의 최초 한글번역과 이후 운허 스님의 한글번역 등이 진행됐지만 한문본을 한글화해 오류가 많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오류는 심각한 교리상의 곡해나 명상수행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박사가 지적한 대표적인 번역 오류부분은 <심지경>의 ‘발광지’(發光地)에 나오는 ‘사선정’(四禪定)에 대한 부분이다. 전 박사는 “초기 경전인 <심지경>에는 ‘심’(尋)과 ‘사’(伺)로 표현된 부분이 <팔십화엄>에는 ‘각’(覺)과 ‘관’(觀)으로 돼있다. 산스크리트 본으로는 ‘사유’와 ‘숙고’ 의미지만 한문본을 번역한 용성 스님

은 ‘깨침’, ‘관찰’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전 박사가 지적한 내용이 따르면 ‘깨침’과 ‘관찰’이 명확히 뒤 내적 평온과 마음의 통일을 성취한다’는 ‘사유와 숙고가 멈춰진 뒤 내적 평온과 마음의 통일을 성취한다’로 그 의미가 크게 변한다. 전 박사는 “역경원을 설립한 운허 스님의 번역은 용성 스님의 구한말투의 번역을 현대어로 바꾼 것으로 전체적으로 용성 스님의 번역을 계승하고 있다”며 “동국역경원의 <심지경> 번역 또한 운허 스님의 번역을 개량했는데 중요요소인 ‘새김, 정정, 평정’에 해당하는 술어가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전 박사는 “한역 경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스크리트본, 티베트 등 다양한 경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박사는 이번 <심지경-오리지널 화엄경>에서 심지를 깨달음 지평으로 해석하고 순 우리말로 번역했다. 전 박사는 936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인 <심지경-오리지널 화엄경>을 비교적 짧은 기간인 1년 동안 번역했다. 노덕현 기자



전법일기

‘영정사진’을 찍는 불자

한 불자가 있다. 사임가인 그는 바쁜 시간을 쪼개 우리절에서 ‘장수사진’ 촬영 봉사를 한다. 처음엔 ‘영정사진’이라고 불렀는데, 몇몇 어르신들이 ‘영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하시면서 오래 살라는 뜻으로 이름을 장수사진으로 바꿔달라고 하셨다. 이름 바꾸는 데 법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니니까 뱅크 바뀌었다. 노인이 죽고 싶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더니 역시 옳은 말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영정사진을 찍지 않고 장수사진을 찍는다. 사진작가이기도 한 그는 네모난 소프트박스 조명과 가장자리가 자주빛인 배경지를 우리절에 갖다 두고 그때그때 자신이 직접 설치하여 사진을 찍는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 후레쉬가 천장을 향해 터지도록 하는데 2개의 조명도 동시에 터져 세계의 조명으로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촬영하면 얼굴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 사진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마치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 같다. 처음엔 촬영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제한했었다. 그런데 몸이 좋지 않은 ‘젊은이’들도 찍게 되어 지금은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 때면 어르신 공양에 참석하시는 단골손님들은 대다수가 찍었지만 지금도 찍지 않고 ‘버티는’ 분들이 있다. 아직 정정하니 영정사진이 필요치 않다는 뜻이다. 그 배경에는 오래 살고 싶다는 염원이 깔려 있을 것이다. 영정사진이 어떤 사진인가. 자손들이 오래도록 볼 사진 아닌가. 그런 사진을 찍는데 아무렇게나 찍을 순 없을 터, 약속이나 한 듯이 할아버지들은 양복을 입고 오시고 할머니들은 한복을 싸오신다.

죽음 준비케 하는 사진 한 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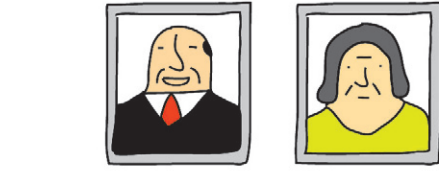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사진작가의 영정사진 봉사 모두가 기억할 ‘선행’

이날은 미용사도 봉사하러 온다. 어떤 할머니는 족욕에서 파마까지 한다. 미용사 보살이 머리 카락을 톡톡도 말고 비닐캡까지 씌워드리면 할머니들은 양전하게 한쪽에 앉아 머리가 되기를 기다린다. 미용사 보살은 화장품도 여러 가지 갖고 와서 할머니들 얼굴을 꾸민다. 할머니들은 뽀얀 얼굴에 빨갛은 볼, 빨간 입술, 짙은 눈썹으로 변신하고 수줍은 웃음을 가득 머금고 나타난다. 여자의 변신

이 무죄라 했던가? 그렇다면 우리 할머니들도 무죄다. 4-5년 영정사진을 찍었더니 요즘은 소문이 퍼져 멀리 사시는 노인들도 사진을 찍기 위해 일부러 오신다. 처음엔 매월 사진을 찍었다. 몇 년을 그렇게 찍었다니 찍을 만한 분들을 다 찍고 이젠 대상자가 많지 않아 석 달에 한 번으로 횟수를 줄였다가 올해부터는 신청이 들어오면 모아서 찍는다. 사진작가는 자신이 찍은 사진을 직접 포토샵으로 손질한 후 디지털 사진인화 전문 업체에서 인화하고 액자까지 만들어 어르신들께 공양한다. 어르신들은 아주 좋아한다. 지금까지 액자를 가져간 분이 700-800분은 족히 될 것인데 그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다. 우리절이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데 있어서 그의 영정사진은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어떤 이는 온갖 영화를 누리다가 세상을 떠나지만 어떤 사람은 죽을 고생을 하다가 떠난다. 어떤 이는 건강하게 오래 살지만 어떤 사람은 요절한다.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이젠 참 평등하고 공평하다. 영정사진은 모든 죽음을 기억하게 한다. 많은 어르신들의 자녀는 영정사진을 보며 부모 생각에 잠길 것이다. 사진작가의 이름은 신상용, 세월이 흘러 그의 이름은 잊혀져도 그의 선행은 새겨질 것이다. 진여의 세계에. 한복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한복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이삭 LED전구		편지 LED전구		주름 등		영정 LED전구
	칼럼 LED전구						영가 등
	공 단 등						구름 LED전구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 제품은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흥은사



운장대 인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흥은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로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